

**2019년 중국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보고서**



광명시의회
GwangMyeong City Council

이 형 덕

1. 국외(중국) 항일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의 계획과 개요

목 적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일제의 지배에 항거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독립유공자를 기리고, 국외 항일운동지역을 방문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동기 및 배경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후손들의 자긍심 고취 및 애국심 함양
기간	2019. 5. 17. - 5. 19.(2박 3일)
방문지역	상해, 항저우
참가인원	총27명(유공자 유족19명, 시장의 공무원5명, 시의원 이형덕, 김연우)

2. 세부일정

일 자	지 역	주 요 일 정
5.17 (금)	인천 → 상하이	·인천국제공항 출발 ·상해(포동)공항 도착 및 이동(식사 및 휴식) ·상해임시정부 청사 ·윤봉길의사 의거지 - 홍커우 공원 탐방 ·황포강 야경(외탄, 일본육군대장 다니카 저격장소) ·투숙 및 휴식
5.18 (토)	상하이 및 가흥	·호텔 조식 후 가흥 이동(2시간) ·김구선생 피난처 ·임시정부요인 주거지 탐방 및 중식 ·항주로 이동 및 중식 ·항주 첫 번째 청사 ·임시정부요인주거지 ·투숙 및 휴식
5.19 (일)	항주 → 인천	조 식 항주공항 이동 항주공항 출발 인천국제공항 도착

3. 중국지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동과 그 흔적을 찾아서



2019년 올해는 1919년 3.1운동과 1919년 4월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서 중앙정부에서도 의미있는 다양한 기념사업에 맞춰 광명시와 시의회, 그리고 독립유공자의 후손이신 광복회 회원을 포함한 27명이 5월17일부터 5월19일까지 2박3일 동안 중국 상하이(上海)와 항저우(杭州)를 중심으로 독립운동 사적지를 탐방하고 돌아왔다. 3년 전, 지인들과 여행길에 방문했을 때와는 또 다른 몽클함이 느껴졌다.

: 상하이(上海)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에서는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와 윤봉길 의사 의거현장을 방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서울의 강남권으로 빗대어 질 만큼 변화한 도심 속 한 권의 비좁은 공간, 대한민국의 거대한 항일운동과 독립의 역사를 품고 있는 도시 상하이(上海) 임시정부청사 앞길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었다.

사진 한장 마음대로 찍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거대한 항일역사 현장을 접하며 씩씩한 마음을 달래야 했지만 짧지 않은 생생한 임정100년의 역사를 잘 지켜온 중국 정부에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는 임시정부가 항저우로의 피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1926년~1932년 사이에 푸칭리의 프랑스 조계 안에서 임시정부가 마지막으로 사용하던 곳이다. 이곳은 1990년 상하이시 루완취 문물보호단위 제174호로 지정되어 개보수를 실시하며 관리되고 있다. 항일전쟁 승전 70주년 기념일에 맞춰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재개관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개보수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했으나 중국 측에서 전액 공사비를 지원한 것으로 보아 당시 중국 국민당과의 관계가 현재의 중국에게도 깊은 의미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임시정부의 운영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특히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간의 갈등, 각 당파의 내부분열로 많은 세력이 이탈하여 임시정부의 세력이 약화되기도 하였으나 이에 초대 임시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미국에 위임통치 청원서를 보내는 사건으로 1925년 탄핵되기도 하였지만 기회가 찾아온 것은 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임시정부에서는 김구 선생에게 특수공작을 위임하였다. 김구는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여 1932년 1월, 이봉창 의사를 통해 일항 폭살을 의거하려했으나 실패했다. 다시 같은 해 4월 29일 윤봉길 의사로 하여금 의거를 일으켜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리고 이 사건으로 중국국민당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 의거를 통해 일제는 임시정부에 대한 강한 견제를 받게 되었는데, 윤봉길의 의거인 4월 직후인 1932년 5월부터 1940년까지 8년 동안 임시정부는 이를 피해 자싱, 항저우, 전장, 창사, 광저우, 류저우, 치장, 충칭등 여러 곳을 전전하며 남서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비록 임시정부가 광복의 마지막 순간을 장식하진 못했지만 한국인의 이념적 정부로서 독립운동의 통합을 주도하였고, 실제 독립운동을 전개하면서 국민의 독립의지를 8.15 광복까지 단절되지 않게 현실적인 실체로서 유지하였다는 것은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

다만 광복이 온전히 임시정부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문제가 한국민족이나 임시정부의 뜻이 아닌 미·영·소 등 열강의 뜻 대로 운영되게 된다.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큰 나라 중국의 땅덩어리에 비해 임시정부의 활동무대는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임시정부는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연해주의 대한민국 민의회, 서울의 한성정부가 있었으나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의 독립운동을 체계화하기 위해 민간정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민족대표 29명이 1919년 4월10일~11일 프랑스의 조계지에서 임시의정원을 개원하고 초대 이승만 대통령을 추대,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통합된 민주정부를 출범시켰으며 이 임시정부는 1945년 해방에 이르기까지 민족의 대표기구이자 독립운동의 최고 중추기관이었다.

상하이는 중국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로써 관문 역할을 했다. 난징조약(1842)으로 미·영·프 등 열강의 조계지가 설치되며 상하이는 동서양이 만나는 정치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고 이러한 특성 때문에 1910년을 전후로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상하이로 모여들었다. 이후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

되어 외교, 군사활동 등을 전개하며 독립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했다. 이후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이 조직되어 활동을 전개하다가 그 중 1932년 4월 29일 한인애국단 소속 윤봉길 의사가 결행한 홍커우공원 의거 직후 항저우로 이동할 때까지 상하이(上海)는 중국 관내지역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다.



(임시정부 유적지)

: 상하이(上海) 윤봉길 의사 의거지 홍커우공원

다음은 윤봉길 의사 의거현장인 홍커우공원이다. 1932년 4월 29일, 일제의 천장절 기념식 및 상해사변 승리의 축하식에 참여한 일본군 총사령관 시라카와 등 정관계 수뇌부 7명을 윤봉길 의사가 폭사시킨 현장이다. 당시를 기념하기 위해 1994년 공원 내에 매정이라는 기념관이 건립되었고(현재는 매현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1998년에는 매정 기념관에서 약 300여미터 정도의 거리에 '윤봉길의사의거기념비'가 건립되어 있다. 공원명은 홍커우공원에서 루쉰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있고 실제로 윤봉길의사가 의거한 현장으로 추정되는 곳에는 루쉰 선생의 동상이 세워져있었다.



(윤봉길의사 추모관)

(루쉰공원,윤봉길의사 의거현장)



(현장서 물붓으로 '영웅 윤봉길' 쓰는 자오청셴씨와 김구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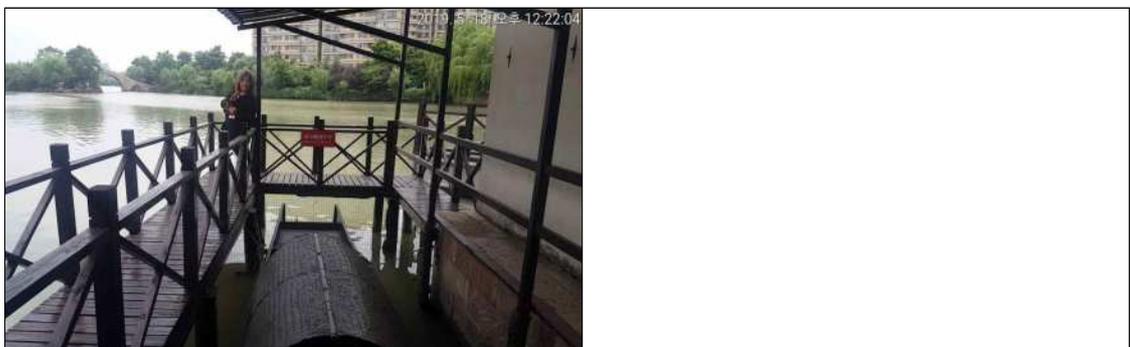
: 김구 선생 피난처 및 임시정부요인 거주지 (흥커우 의거)

백범 김구 선생은 황해도 태생으로 안중근 의사 집안과는 각별한 사이였다. 선생은 1919년 중국으로 망명하여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의 의거 후 일제는 현상금 60만원을 걸고 수사를 했는데, 가흥의 애국지사인 저보성의 도움을 받아 피신하였다. 가흥, 해염, 향주, 남경 등지를 떠돌며 2년여 동안 피난 다닌 끝에 1936년 2월 가흥을 떠났다.

우리가 찾은 매만가 76호는 진동생 선생 주택으로 청말에 지은 목조 양식 2층 건물이다. 남쪽은 호수와 맞닿아 있으며, 배를 밀고 호수로 나아 갈수 있는 좋은 피신처로 보였다. 1932년 5월 백범 선생은 저보성의 지원으로 이곳에 몸을 숨겼는데, 가흥시 정부는 김구 선생의 피난처를 2000년 시급문물보호단위로 지정했다가 2005년 전면 개보수하여 성급문물보호단위로 지정하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1932년 5월 20일 저보성은 가족의 안위를 뒤로 하고 김구와 임정 요인들을 고향인 가흥으로 긴급 피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인물이며, 진보생은 저보성의 양아들로 김구의 생활과 안전을 책임졌다. 주가예(朱佳蕊)는 시아버지 저보성의 지시에 따라 위험을 무릅쓰며 김구 선생을 재청별장으로 피신시킨 분이다. 김구 선생은 이곳에서 반년을 지냈다.



(김구 선생 피난처 및 임시정부요인 거주지)

주애보(朱愛寶)라는 여인은 1933년 여름 가흥에서 광동인 장진구로 위장한 김구를 안전하게 피신시키기 위해 배를 타고 운하를 돌며 일본경찰의 추격을 따돌린 지혜로운 여인이다.

4. 2박3일간의 항일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을 마무리하며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일제의 지배에 항거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독립 유공자를 기리고, 국외 항일운동지역을 방문하여 자긍심을 고취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2박3일간의 중국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에 올랐다.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윤봉길의거현장, 김구선생의 피난처와 임시정부요인의 주거지, 부동산 개발로 유적지의 흔적이 사라진 곳도 있어 안내하시는 분의 손가락 끝에 상상을 맡겨야 하는 안타까움도 있었다.

저보성, 진보생, 저봉장, 주가예(朱佳蕊), 주애보(朱愛寶)라는 여인까지 가족의 안위를 뒤로 하고 김구와 임정 요인들을 고향인 가흥으로 긴급 피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인물들을 생각해 보면, 언제 이뤄질지도 모르는 조국의 광복을 기다리며 시시각각 조여 오는 생명의 위협을 극복해야 했던 독립 운동가들의 기약 없는 긴 여정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려오는 것 같다.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선친들의 독립운동 발자취를 찾는 유족들의 감회는 또 어떠했을까?

참가하신 대부분의 유족들이 연로하심에도 곳곳하고 강건하심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는 자긍심이 큰 버팀목이었으리라..

이번 역사탐방을 마무리하며 부끄럽지만 그동안 저의 역사의식이 어느 정도였는지 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후대 청소년들에게 의자위의 피동적인 10가지의 지식보다 생생하고 피부로 느끼는 역사적 현장을 경험하라는 권면과 함께 우리민족의 역사관 확립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확보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